

# 원주시 지부

## 젊음과 활력으로 내일을 향한다



정 낙 삼 지부장

원주는 젊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되 그 산이 어느날 깊은 침묵에서 깨어나 새로운 시대로 내달릴 때가 있다. 그때 모든 것은 젊어진다. 또 다른 시작의 활력이 솟아 오르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강원도의 교통 중심지인 원주시는 올해 원주군을 통합하였고 내년이면 중앙고속도로 개통, 신갈-원주간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공사 완공으로 강원도의 대표적인 교통, 상권의 중심지로 자리잡는다. 오는 2천년이면 인구 40만. 치악산, 구룡사, 상호사,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과 명소를 그대로 간직한 채 한편에서는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는 등 지금 원주는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여념이 없다.

1987년 창립되어 올해로 8년을 맞는 원주시지부는 현재 가입회원 50개 업소. 그중 60%가 30대의 젊은층으로 구성된 원주시의 또 하나의 젊음이다. 따라서 의욕도 많고 할 일도 많다. 아직은 소규모 지부로서 구성원

을 보강하고 결속을 다지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원주시와 함께 강원도내 제과업계를 이끌겠다는 다부진 각오가 지부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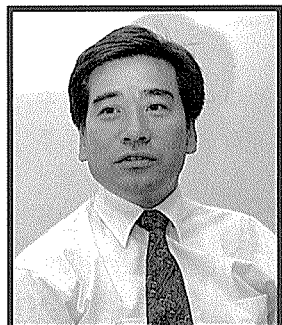
정낙삼지부장이 이끄는 원주시지부는 김상호, 이종만 두 부지부장과 함께 5명의 이사, 감사, 총무 각 1명, 그리고 김철섭전지부장을 포함한 전임지부장으로 구성된 고문단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 설립이전부터 약 7년간 '원주시 기술인 모임'을 운영했다는 원주시지부는 설립 당시 현재의 정지부장, 이부지부장, 김철섭 고문 등이 주축이 되어 전국의 지회·지부를 방문, 지부 운영의 기본을 배우고 설립 이후에는 강원도내 중소도시를 다니며 협회 활동을 홍보함과 아울러 새로운 지부 창립을 이끌어 이미 적극적인 지부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29일 고성군 하일라벨리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 속초 4개 지부가 참석한 강원지역 제2회 과업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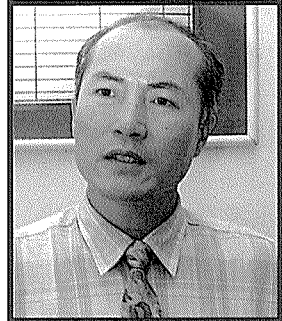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여 지부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원주시지부 회원들은 젊은 활력으로 가득차 있다. 강원도내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원주시의 미래와 함께 강원도의 제과업계를 주도하겠다는 이들의 의욕이 다가오는 시대의 협회 미래상을 밝게 한다.

열렸다. 지난해 창립된 속초지부가 주관하였고 원주지부는 2회 연속 우승. 우승을 떠나 강원 제과업계의 단합을 위한 이 대회는 원주지부가 제1회 대회를 추진함으로써 작년년부터 시작되었고 내년에는 강릉이 주관하게 된다. 1회 대회 전부터 춘천과 원주가 해마다 번갈아 방문하며 체육대회를 치뤄 기반을 닦아온 이 대회는 강릉, 속초지부가 창립되면서 강원 제과업계의 축제가 된 것.

과업인 한마당 체육대회는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첫째는 물론 강원 각 지부의 화합과 친목, 그리고 나아가서 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각 시도에 이 행사를 홍보하여 지부 설립을 이끌고 업계의 발전을 이룬다는 큰 뜻이 숨어있다. 개인적 교류, 지부차원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별 차이를 극복하고 인력 수급의 원활과 기술력 공유 등의 목적도 겸하고 있다. 이 대회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김철섭 고문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제과업계가 창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건강과 젊음 이것이 원주지부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 철 섭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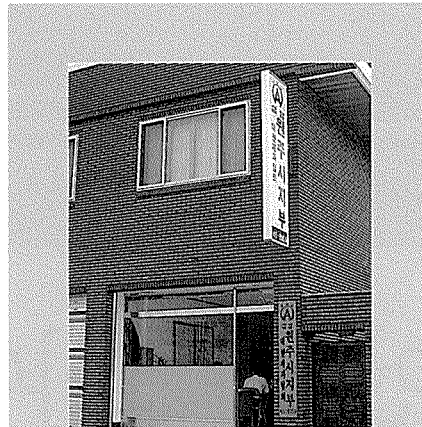
김 상 호 부지부장



이 중 만 부지부장

올해 원주지부의 최대 과제는 미가입 업소를 전부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지부내부의 조직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것을 달성키 위해서 전 회원이 단합하여 모범적인 자세로 업소 운영이나 지부 활동에 임하고 있다. 지부차원의 공동구매 활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업계 홍보를 겸한 제과제빵 교육 실시, 회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의 주요 활동은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낙삼지부장이 그 기반을 닦아야 할 사업이다.

남다른 활동력과 리더십으로 타지부의 모



### 건강한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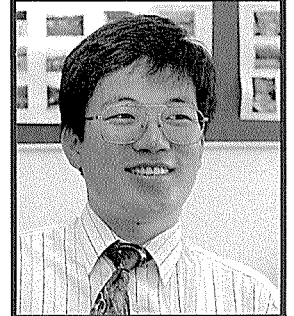
그래서 젊은 역동성으로 가득찬  
원주지부의 최대 과제는  
미가입 업소를 전부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지부내부의 조직을 강화하는 데 있다.

범이 되고 있는 정지부장은 지난 6월 5년전부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지부사무실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제 원주지부의 계획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결실을 보게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 활동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 개인의 이익보다는 과업인 전체의 단결과 친목을 우선하여 지부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신념과 함께, 회원들이 협회에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더욱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여 지부의 발전을 고



서 성 용 총무



정 기 순 감사



한 용 덕 이사

려하고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원주지부 회원들은 때문에 원주지부 발전에만 생각이 국한되어 있지 않다. 현재 강원지역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치루지는 체육대회를 전국적인 대회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또 원주에 인근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우리 협회 전국 회원들이 정신수련을 위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는 뜻도 내보이고 있다. 어떤 일에도 솔선수범, 의욕을 보이는 원주지부의 젊음이 여기에도 나타난다. 또한 관련업체의 초청 세미나에서 세미나 자체보다는 자사 홍보용 여흥에 주력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건전한 업계의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지부의 활성화, 우리협회와 업계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디딤돌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다. '단합과 결속'이라는 말은 몇번이나 반복되어도 변함없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뜻뜻한 형제애와 건강한 의욕을 가진 원주지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젊은 역동성을 보여준다.

〈글 김희득〉